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iye

2022년 12월 28일 | 선임조사역(G2) 황수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784천 km ² 	인구 8,568만 명 (2022 ^f) 	정치체제 대통령제 	대외정책 친러로 외교정책 변화 
GDP 8,535억 달러 (2022 ^f) 	1인당GDP 9,961달러 (2022 ^f) 	통화단위 Turkish Lira 	환율(U\$기준) 16.65 (2022 ^f) 

□ 튀르키예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면적과 유럽에서 가장 많은 8,568만 명의 인구(2022년 추정)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에 위치함. 입지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단순 조립생산 위주의 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임.

□ 2022년 튀르키예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 전년도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전년(11.4%) 대비 낮아진 5.0%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에르도안 행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외국인투자심리 위축, 환율 불안 등은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임.

□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이후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개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도입한 이후 장기집권을 도모하며 독재정치를 추구하여 야권의 반발과 대내외 비난을 받고 있으며 2019년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 등 주요 도시에서 야당에 패배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통 우방이었던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가 최근 냉각된 반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러시아와는 군사 및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7. 3. 8. 수교 (북한과는 2001. 6. 27. 수교)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72),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 이중과세 방지협정('86), 투자보장협정('94년), 섬유협정('97),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99),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 관광협정, 상품무역협정('13), 사회보장협정('15), 문화협정('17),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18)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5,297,808	5,544,537	7,025,978	전자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수입	1,189,057	1,317,083	1,237,118	축산물, 전자제품, 수송기계

해외직접투자현황(2022.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195건, 3,389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제성장률	3.0	0.8	1.9	11.4	5.0
소비자물가상승률	16.3	15.2	12.3	19.6	73.1
재정수지/GDP	-3.8	-4.8	-5.1	-3.9	-4.2

자료: IMF

튀르키예 경제는 2021년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가 등으로 11.4%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금년에는 높은 물가상승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5.0% 성장에 그칠 전망

- 튀르키예 경제는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 가계소비 호조,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가 등으로 11.4%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IMF).
- 2023년에는 글로벌 저성장 및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튀르키예의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인 3% 안팎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며, 2024~27년 중에도 연평균 3.2%의 경제성장이 예상됨(EIU).
- 2023년 6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에르도안 행정부는 물가 안정보다는 경제성장률 제고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금년 8월 CPI 80%)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 중앙은행에 대한 행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저금리를 이용한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라,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금년 하반기에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4%에서 10.5% 수준으로 인하하였음.

재정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2020년 GDP 대비 -5.1%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개선 추세

- 2021년 법인세율 인상(20%→25%)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지출도 전년보다 감소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 대비 1.2%p 감소한 -3.9%를 기록하였음. 다만, 금년에는 법인세율 인하(25%→23%)와 연금 및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2%로 높아질 전망이다(IMF).
-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년 1월 및 7월 최저임금 인상(각각 50%, 30%)을 지시함에 따라 공공 부문 임금도 약 25% 상승하였고, 금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보조금 정책,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사업, 정기예금 이자보전 정책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23년에는 6월의 대선 및 총선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대 후반 수준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 비율은 2024년 이후에도 장기 평균(-4% 내외)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 상 수 지	-20,114	10,798	-31,878	-7,231	-42,226
경상수지/GDP	-2.6	1.4	-4.4	-0.9	-4.9
상 품 수 지	-40,726	-16,781	-37,863	-29,313	-75,213
상 품 수 출	178,909	182,200	168,387	224,686	241,712
상 품 수 입	219,635	198,981	206,250	253,999	316,925
외 환 보 유 액	71,367	77,042	48,389	63,179	60,639
총 외 채	443,443	415,921	432,804	447,444	479,709
총외채잔액/GDP	56.9	54.8	60.1	54.7	56.2
D.S.R.	27.7	26.4	26.9	19.6	14.6

자료: IMF, EIU

2021년 상품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상적자 비율이 GDP 대비 -4.9%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최근 튀르키예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주요 교역국인 EU 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입액 증가에 주로 기인함. 상품수지와 소득수지 모두 2018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 경상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음.
- 금년에는 상품수출액이 소폭 증가(7.6%)한 반면 상품수입액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24.8%)한 결과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56.6%나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72.3억 달러)보다 약 5.7배 증가한 422.3억 달러(GDP 대비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IMF).
- 튀르키예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금년 1~11월 총 1,210천 대를 생산하여 이중 72.4%인 876천 대를 수출(수출액 283억 달러)하여 전년 동기 대비 생산은 5.7%, 수출대수와 수출금액은 각각 5.0%, 5.3% 증가하였음.
- 상품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특히 원유의 경우 배럴당 평균가격이 2023년에는 2022년(브렌트유 기준 102달러)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 수입을 제외할 경우 튀르키예 경상수지는 금년 3분기까지 181억 달러 흑자(GDP 대비 2.5%)를 보임(Fitch).
- 관광업은 튀르키예 GDP의 10%를 차지하며 국제수지 중 유일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대부분의 관광객은 독일 등 EU 지역, 러시아 등에서 유입되고 있으나, 동 지역의 경기침체는 튀르키예의 관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대외거래

2020년 외환시장 개입으로 크게 감소했던 외환보유액은 2021년에 전년 대비 30.6%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월평균수입액의 2개월분에 그친 것으로 추정

-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감소를 지속하던 외환보유액은 2019년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770억 달러) 월평균수입액의 3.8개월분에 달하였으나, 이후 경상수지 악화로 2020년에는 433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2.4개월분)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수출 호조, FDI 유입 등으로 인해 632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2.5개월분)로 다소 증가하였음.
- 금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은 전년보다 4.6% 감소한 60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2.0개월분으로 대외지불능력이 저조한 수준임(IMF).
- 튀르키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에르도안 행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2019년부터 2년 연속 유입액이 감소하다 2021년 일시 반등하였으나, 금년에 재차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UNCTAD, EIU).
 - * FDI 유입액(백만달러) : 12,573('18) → 9,594('19) → 7,821('20) → 12,530('21) → 10,000('22)
- 한편, 터키 중앙은행은 2021년 6월과 8월에 각각 중국(60억 달러), 한국(20억 달러)과 통화스왑을 통해 총 80억 달러를 확보하였고, 동년 8월에는 IMF 특별인출권 배분을 통해 64억 달러를 확보하였음.

외채상환능력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총수출 증가 등으로 D.S.R.은 개선 추세

- 총외채잔액은 2021년에 전년 대비 146.4억 달러(3.4%) 증가한 4,474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에도 322.6억 달러(7.2%) 증가한 4,797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 기준 총외채의 68.2%가 기업, 은행 등 민간 부문의 차입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규모가 2021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60.1%에서 2021년 54.7%으로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56.2%으로 전망됨.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최근 상품수출 호조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임('21년 152.8% → '22년 148.6% 전망).
- 총외채잔액 중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20년 26.3%, 2021년 27.2%에 이어 금년에는 25.3%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리라화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급감으로 235.5%로 급등한 이후 2021년 192.4%로 다소 낮아졌으며, 금년에는 200.4%를 기록할 전망이다.
- D.S.R.은 IMF와 세계은행 권장 수준인 18~2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낮아지는 추세임. 2020년 26.9%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수출 증가 등으로 2021년 19.36%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는 14.6%로 전망됨.
- 한편, 최근의 리라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어 튀르키예의 외채상환능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구조적취약성

산업구조 자체는 다변화되어 있으나, 제조업 부문은 단순 조립 저부가가치 중심

- 튀르키예는 원자재 수출, 관광 등 특정 분야에의 의존도가 높은 인근 국가들과 달리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튀르키예 정부가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FDI 유치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특히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이 자국에서 부품을 수입한 후 튀르키예 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유럽 지역에 수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조립 중심의 저부가 제조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환율 불안 등도 튀르키예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인

-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전량 의존하며, 상품수입액에서 원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3.7%, 2019년 21.2%, 2021년 23.5%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높은 에너지 수입비중은 최근 경상수지 적자 심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미 달러화 대비 리라화 연평균 환율은 2021년 8.85에서 금년에 16.56으로 급등할 전망(EIU)임. 경상수지 적자 지속,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리라화 가치는 향후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성장잠재력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이점과 풍부한 노동력 보유

-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중동,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함. 아울러 유럽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68%에 달하는 등 노동력이 풍부하여 제조업 생산기지 역할이 가능함.
- 튀르키예 인구는 지난해 84.8백만 명으로 전년(84.1백만 명)대비 0.7백만 명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85.3백만 명으로 추산됨(EIU). 인구증가율이 유럽 지역 1위이며(최근 5년간 0.90%, 독일 0.20%, 헝가리 -0.22%), 합계출산율도 최근 5년 평균 2.05명으로 주변국 대비 높은 수준임(독일 1.56, 헝가리 1.55).

EU와 관세동맹 체결 등으로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

- 튀르키예는 1995년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서유럽의 거대 수출시장을 확보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증가하여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중심으로 여러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였고, 작년 FDI 유입액도 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2% 증가하였음.
- 관세동맹 체결 이후 1995년 337억 달러, 2010년 1,646억 달러, 2021년 2,891억 달러로 수출액이 증가하였음. FDI 유입액도 1995년 8.8억 달러에서 2021년 125억 달러로 14.2배 증가하였고, 잔액 기준으로 149억 달러에서 1,207억 달러로 8.1배 증가하였음.

정책성과

높은 물가상승률, 리라화 가치 하락 등으로 에르도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고조

-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를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최근 수년간 리라화 가치가 하락을 거듭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0%를 상회함에 따라(11월 CPI 84.4%)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미국,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고, 이것이 상대국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져 튀르키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속적인 침해는 경제불안을 초래

- 2019년 7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잔여임기를 9개월 남긴 체틴카야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신임 총재로 정부정책에 순응적인 우이살 부총재를 임명하였음. 체틴카야 총재는 금리정책 관련 에르도안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 맞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왔음.
- 총재 교체 후 2019년 7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4%에서 19.75%로 인하하고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로 인하하였음. 중앙은행은 경기회복을 기준금리 인하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한 결과로 해석됨.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 11월 우이살 총재를 해임하고 아르발 전 재무장관을 신임 총재로 임명하였으나 4개월 만에 전격 해임하고 친정부 인사인 전 국회의원 카브치오을루를 임명하였음. 이후 중앙은행은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리라화 환율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하였음.

* 기준금리 : 19.0%('21.3) → 15.0%('21.11) → 14.0%('22.7) → 10.5%('22.10) → 9%('22.12)

* 환율(Lira/U\$) : 7.42('21.3.1) → 9.58('21.11.1) → 13.31('22.1.1) → 17.35('22.6.23) → 18.68('22.12.27)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환율 안정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튀르키예 중앙은행만이 기준금리 인하를 고집함에 따라 튀르키예는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아울러 투자자 신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외환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비전통적인 금리정책(물가 상승에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을 지양하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달러화 수출대금을 의무적으로 리라화로 환전토록 하는 정책도 외환보유고 확충에 도움이 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자본통제도 필요함(EIU).

정치동향

에르도안 대통령, 독단적 국정운영과 장기집권 도모로 국내외 비난에 직면

- 이스탄불 시장(1994~98년)과 국무총리(2003~14년)를 거쳐 2014년 8월 집권, 2018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재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공화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이 확립한 정교분리 세속주의를 무시하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앞세워 종교적 보수층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7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정부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자신의 반대파로 분류된 이들에게 쿠데타 가담 혐의를 씌워 숙청 작업을 벌여 사법부와 군부를 모두 완전히 장악함.
-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4월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을 통해 권한이 크게 강화된 대통령제를 도입한 뒤,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집권을 도모하여 국내외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
- 개헌의 주요 내용은 총리직을 폐지하고 부총리직을 신설하여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행정 명령 발효, 의회의 승인 없이 부통령과 장관 임명,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의 권한은 물론 판사/검사 등 사법부 인사권까지 부여하여 사실상 절대권력을 허용하고 3권분립을 노골적으로 훼손하였음.
- 또한 대통령은 대선 및 총선을 조기 시행할 권한을 가지며 대선 승리 시 중임할 수 있고, 중임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조기 대선에 재차 출마 가능함.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8년 6월 조기 대선 승리로 2028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며, 임기 전에 대선을 다시 실시할 경우 2033년까지 재임 가능함.

2018년 총선에서 여권연대가 승리하였으나 2019년 지방선거 이후 집권세력 내 분열 양상

-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민족주의자운동당(MHP)와 연합을 이루어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보수성향 여권연대(People's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도좌파 공화인민당(CHP)은 2017년 11월 창당한 중도우파 좋은당(IYI)과 함께 야권연대(Nation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음. 의회에는 친쿠르드족 성향의 인민민주당(HDP)도 진출해 있음.
- 2018년 6월 총선결과 총 600석 중 여권연대가 344석(AKP 295석, MHP 49석)으로 과반인 57.3%를 차지하였고, 야권연대는 189석(CHP 146석, IYI 43석)으로 31.5%를 차지함. HDP는 67석(11.2%)을 차지함.
- 한편,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 앙카라 등 주요 도시에서 여권후보가 낙선하고 정의개발당의 위상이 추락하자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 3권분립 침해, 과도한 종교적 보수주의 등에 반감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신당을 창당하는 등 AKP 내부 분열이 나타남.

2023년 6월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20년 만에 최대 시험대에 오늘 가능성

- 높은 물가상승률, 리라화 약세, 만연한 부패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결선투표 기준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의개발당의 어려움이 예상됨(EIU).

사회동향

에르도안 대통령의 여론 통제, 언론 탄압 등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7월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이후 언론·출판에 대한 정부의 검열과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최대 정적인 이슬람 성직자 펫홀라르 귤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 등을 폐기하고 관련 서적 출판을 금지하는 등 여론 억압이 심해지고 있음. 2018년에는 귤런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망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주 이름이 포함된 교과서를 전량 폐기한 바 있음.
- 튀르키예의 언론 자유도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하는 ‘언론자유도지수’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계속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2020년 180개국 중 154위, 2021년 180개국 중 153위, 2022년 180개국 중 149위 등으로 인도, 수단 등과 비슷한 수준임.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 유입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인접국인 튀르키예로 유입되어 약 38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튀르키예 국내에 머물고 있음. 난민 유입은 재정지출 증가, 난민 유입 지역의 물가 상승, 난민에 대한 반감 증폭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 한편, 시리아에서 유입되는 난민은 일자리가 많은 이스탄불로 몰리자 튀르키예 정부는 불법으로 이스탄불에 체류하는 난민을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20019년부터 튀르키예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이스탄불 거주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처리를 위해 EU는 2016년 튀르키예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60억 유로를 지원하는 대신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을 튀르키예가 수용토록 조치하였음. EU는 2021년 6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2021~24년 중 튀르키예에 30억 유로를 추가 지원키로 결정함.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쿠르드족 문제는 안보의 지속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자체적인 민족국가를 구성하지 못한 민족들 중 세계 최대 인구(약 3,000만 명)를 보유한 중동의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지에 분포하고 있음. 쿠르드족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은 쿠르드족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튀르키예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서 테러 활동 등을 벌이고 있음.
-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튀르키예 군인과 민간인이 PKK 공격으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튀르키예 정부는 PKK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음. 향후에도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주장에 대해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쿠르드족 문제는 안보에 가장 큰 불안요인임.

국제관계

2016년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 구금사건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

- 미국인 개신교 목사 앤드루 브런슨은 튀르키예의 이즈미르에 20년 이상 거주하며 개신교 교회를 운영하였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이슬람 성직자 펫홀라후 귤른과 결탁하여 정부 전복을 도모하였다는 죄목으로 2016년 10월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함.
- 미국 정부가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튀르키예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경제제재를 발동하자 튀르키예 법원은 2018년 10월 그의 석방을 결정하여 구금 2년 만에 석방되었음.
- 한편,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16일 튀르키예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경제제재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여 양국관계가 냉각됨.
- 2017년 4월 튀르키예 정부가 러시아산 미사일 무기체계를 도입하자 미국 정부는 튀르키예를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완전 배제하고 F-35의 대 튀르키예 수출을 금지하였음.
- 튀르키예 정부는 2022년 11월 13일 발생한 이스탄불 폭탄 테러 사건(6명 사망, 80여명 부상)의 배후로 쿠르드족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이들을 미국이 배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조의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음.

키프로스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탐사 문제 등으로 EU와의 갈등관계 심화되

- EU는 유럽으로 유입된 중동 지역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튀르키예 정부와 협력하여 왔으나, 2016년 7월 쿠데타 진압 이후 반대세력 숙청, 언론 탄압, 사형제 재도입 등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 심화로 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11월 튀르키예의 EU 가입 심사를 중단한 후 관계가 악화됨.
- 최근에는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 해역에 천연가스전 개발 관련 그리스, EU 등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키프로스 섬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그리스계)이 프랑스 Total, 이탈리아 Eni, 미국 ExxonMobil 등 서방 에너지기업들과 협력하여 2017년 7월 가스전 개발을 개시하자, 키프로스 섬 북부의 북키프로스 공화국(터키계, UN 미승인국)을 지원하는 튀르키예는 이에 반발하여 군사 개입을 시사하였음.
- * 키프로스는 내전 결과 1974년 8월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부의 북키프로스 공화국은 튀르키예의 영향 아래 있고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은 2004년 5월 EU에 가입. 키프로스 해역의 약 3.5조 m³ 규모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전 개발을 두고 튀르키예, 그리스 등 관련국들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영해 설정을 놓고 분쟁 중임.
- 2019년 5월 튀르키예가 북키프로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변 해역에서 천연가스 탐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자 남부 키프로스 공화국과 그리스, EU는 즉각 반발하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항공운송 협정 중단, EU 지원금 삭감 등)를 취하였으나 튀르키예는 탐사작업을 강행하여 긴장관계가 고조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식 외교로 실리 추구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반대하고 러시아와 에너지 및 관광 분야 협력을 도모하는 등 실리 위주의 줄타기식 외교로 전통 우방국인 EU, 미국 등의 반발을 사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하락세로 2022년 6월 말 0.07%의 낮은 수준

- 2022년 6월 말 기준 튀르키예의 OECD 회원국 ECA앞 채무원리금 잔액은 251억 달러(단기 50억 9,610만 달러, 중장기 200억 7,000만 달러)임. 이중 연체액은 1,870만 달러(단기 100만 달러, 중장기 1,770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0.07%로 낮은 수준이며 2021년 6월 말 기준(0.07%)과 거의 같음.
- 연체비율(%) : 0.27(2019.12) → 0.13(2020.6) → 0.07(2021.6) → 0.07(2022.6)
- 한편, IMF는 튀르키예 Country Report(2021.6월)의 튀르키예 외채상황에 대한 기본전망(baseline)에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9~20년 약 60% 내외에서 2026년까지 약 4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다만, 리라화 가치 하락과 대외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가 외채상환능력에 중요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2.01)	5등급(2021.01)
S&P	B (2022.09)	B+ (2021.12)
Moody's	B3 (2022.08)	B2 (2020.09)
Fitch	B (2022.07)	B+ (2022.02)

국제신용평가3사는 튀르키예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

- S&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3사는 튀르키예에 대해 모두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한편, OECD는 튀르키예에 대해 2018년 6월 5등급을 부여한 이후 지속적으로 5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중 등급 재평가 예정임.

- 튀르키예 경제는 2021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 가계소비 호조, 산업생산 및 수출호조 등으로 11.4%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5.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에르도안 대통령이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후 3권분립을 저해하고 언론통제, 정치인 탄압 등 독재와 장기집권을 추구하여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2019년 3월 지방선거 결과 이스탄불, 앙카라 등 주요 도시에서 야당이 승리한 후 여당 중진들이 신당을 창당하는 등 여권 분열이 나타나 2023년 6월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미국의 브런슨 목사 억류사건, 러시아 미사일 구매, 키프로스 해역에서 천연가스 탐사 등의 문제로 미국, EU 등과 관계가 악화되었음. 한편, 튀르키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NATO 회원국으로서 무력전쟁을 비난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음.